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모임은 동교회 별로 모입니다. 좋은 사귄의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태안에 있는 연포감리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사랑과 수고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 차원에서 펼치는 환경 캠페인입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한낮의 뜨거운 더위 속에도 나무 그늘의 시원함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해주시는 등목을 기다리는 아들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물가 그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시원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마주 대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며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박시내 김준호 곽혜자 김신옥 박병구 박애순 서원금 안정숙
이광용 형인순 이봉옥 임주빈 최현옥 조병주 홍순구 안홍숙 정한구
김준호 정은영 권미숙 곽경선

월정헌금:

권미정 김영한 이희균 김종철 고영애 김정애 김지현 김지은 박석희
조항미 배부례 송의섭 이갑재 이인웅 전영자 조순덕 황의일 문홍일

감사헌금:

정복순 조순덕 이유일 김민희 권혜민 전성오 이미혜 박병구 김정애
무명5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녹색공헌금:

문도현 무명1 (누계: 1,20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오 리

이윤학

오리가 쭈시고 다니는 호수를 보고 있었지.
 오리는 몽툰한 부리로 호수를 쭈시고 있었지.
 호수의 몸속 건더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지.
 나는 당신 마음을 쭈시고 있었지.
 나는 당신 마음 위에 떠 있었지.
 꼬리를 흔들며 갈퀴손으로
 당신 마음을 긁어내고 있었지.
 당신 마음이 너무 깊고 넓게 퍼져
 나는 가보지 않은 데 더 많고
 내 눈은 어두워 보지 못했지.
 나는 마음 밖으로 나와 볼일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뒤똥거리며
 당신 마음 위에 뜨곤 했었지.
 나는 당신 마음 위에서 자지 못하고
 수많은 갈대 사이에 있었지.
 갈대가 흔들리는 칼을 보았지.
 칼이 꺾이는 걸 보았지.
 내 날개는
 당신을 떠나는 데만 사용되었지.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편하게 머물고자 하는 곳이 때로는 우리 영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자'하실 때 바로 따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합당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새로운 순례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기도/김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윤미경 집사

7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박두석 곽혜자 장혜숙 이권화
	헌금위원	한상의 박애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만일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 주위의 세상을 둘러본다면, 우리는 고통과 분열을 보고 듣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벽으로 자신을 철저히 가린 채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면 무감각하게, 냉정하게, 또는 무덤덤하게 폐쇄적 입장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도피, 두려움 등의 표지인 감탄사만 남발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어디서 이보다 더 큰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 주고자 합니다.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나에게는

나를 안심시키고

안정케 하는 모든 것들

내 일상적 습관들을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는

안이한 내 양심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명예를

버릴 용기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바꾸어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께 나의 단혀지고 갇혀 있는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분은 오직 내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만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예외도 제한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민감하고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혼자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나의 원이요 나의 갈망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나의 모델이요, 스승이요,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얼마나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후12:10)

내가 내 존재의 근본적인 가난과 나의 굳은 마음과 나의 교만, 그리고 참된 희망을 바라볼 줄 모르는 나의 무능을 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려움(인정받지 못함, 외로움,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허구의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 “오소서, 오시어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당신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게 되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하고 벌거벗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성령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장 바니에, << 두 세계 사이의 하느님 나라 >>

모든 실패한 사랑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자라잡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반면 사랑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신뢰, 공감, 우정, 변화에 도달하게 됩니다.